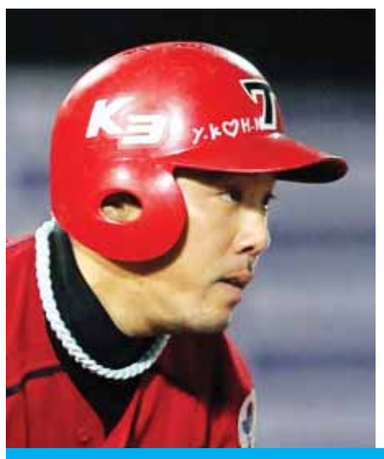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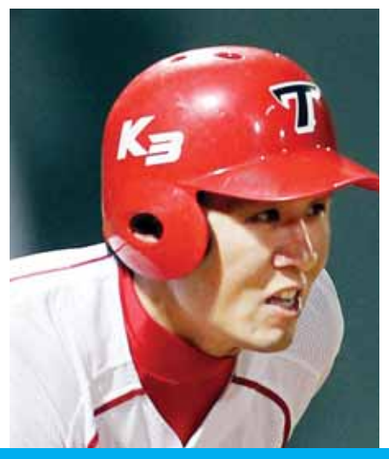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이용규 상승무드에 신종길 합류하고… 김주찬 효과까지

KIA 6월 대반격 시작됐다

공·수 다양한 변화 꾀해 재도약 채비
스피드 업… 포수 이성우도 1군 복귀

KIA 타이거즈가 '잃어버린 5월'을 만회하기 위한 재도약에 나선다.

KIA 외야수 신종길이 11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신종길은 지난 6일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부상 부위가 뭉치면서 한 차례 복귀 시점이 미뤄졌다.

이용규를 필두로 한 타격 상승세 속에 신종길이 이상 없이 1군에 복귀하면서 KIA 타선의 운영 폭이 넓어지게 됐다.

개막 전만 해도 KIA 외야는 한치 양보 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접전지였다. 상황에 따라 공격형과 수비형으로 타선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선수층을 자랑하던 포지션이지만 김주찬(손목 골절), 신종길(우측 햄스트링), 김원섭(왼 발목 인대 파열)의 부상이 잇달아 찾아오면서 공·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이용규의 슬럼프가 길어지면서 이중고를 겪었던 KIA는 타격 상승세와 함께 부상병 복귀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6월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김주찬·신종길의 합류로 외야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상승세의 이용규가 중심에 서고 김주찬과 신종길이 좌우를 지키게 되면 나지완을 지명타자로 해 수비·스피드 업, 공격 강화를 꾀 할 수 있다. 최근 지명 타자로 체력을 비축해두었던 최희섭은 1루수로 자리를 돌릴 수 있다. 공·수의 집중력이 좋아진 김주형이 1루수 백업으로 대기를 하면서 경기 중·후반 운영에도 한결 여유가 생기게 된다.

11일 패턴과 같이 우익수 나지완, 지명타자 최희섭, 1루수 김주형을 기본으로 신종길을 조커로 활용해 경기 중반 공·수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도 있다. 11일 '루키' 이홍구를 대신해 어깨 부상으로 재활을 했던 포수 이성우가 이날 1군에 올라오면서 안방에서 분전했던 차일목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됐다. 재활군을 담당했던 홍세완 코치도 보조 코치로 타격 강화에 힘을 보태는 등 타선의 재정비가 이뤄졌다.

KIA 재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마운드. 특히 선발진의 안정이 선동열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이다.

선 감독은 "타격은 기복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선발이다. 선발들이 자기 몫을 해줘야 하는데. 소사와 윤석민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서재응이 부진 속에 2군행을 자처한 가운데 소사와 윤석민도 지난해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석민은 WBC참가와 어깨 부상 여파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올 시즌 4차례 선발에서 승 없이 4.79의 방어율로 3패만 기록하고 있다. 소사도 안정감이 떨어지면서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선 감독은 "소사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다. 파워로 윽박지르는 피칭을 해야하는 데 맞춰 잡는 피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스타전 서군 사령탑 맡은 선동열 "5위했는데 감독이야"

⚾ 덕아웃 말말말

▲5위 했는데 감독이야=올스타전에서 서군 사령탑을 맡은 선동열 감독, 지난해 서군팀 성적이 좋지 못했다면서. 서군은 넥센(6위), LG(7위), 한화(8위) 그리고 신생팀 NC로 구성됐다.

▲앉아계시라고 해야지=선동열 감독, 올스타전에서 서군 코치인 한화 김응용 감독이 주루 코치로 나가시는 거냐는 질문을 받자.

▲옛날 생각나네=물 심부름을 담당한 양현종, 후배들이 일이 많아서 자신이 막내 역할을 자처했다면서.

▲추월하려고 추월산 다녀왔지=김평호 코치, 휴식일이었던 11일 좋은 성적으로 앞에 있는 팀들을 추월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추월산에 다녀왔다면서.

▲버티고 있네=재활군 훈련을 마치고 덕아웃에 들린 서재응, 김주형을 보고. 예전보다 실력이 늘었다면서.

▲결혼해서 잘하는 거냐?=선동열 감독, 인사를 하러 온 NC 조영훈을 향해. NC에 새 둥지를 튼 조영훈은 0.331의 타율로 타격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원하잖아요=유동훈, 취재진이 삭발 머리에 관심을 보이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 맞은 추신수… 사구 18개로 개인新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가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방문경기에서 한 시즌 개인 최다 몸에 맞는 공 신기록(18개)을 세웠다.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09년 세운 개인 최다 사구(17개)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팬들과의 만남

K리그 클래식의 전남 드래곤즈가 클럽하우스에서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전남은 최근 공식 서포터즈인 워너드래곤즈 회원을 클럽하우스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즐거운 보냈다.

이번 초청은 전반기 열심히 활동한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서포터즈들은 웨이트 트레이닝룸, 치료실, 미디어실, 선수 개인 방 등을 돌며 그동안 궁금했던 클럽하우스를 구경했다. 점심시간에는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

하석주 감독은 "팬들이 이렇게 방문해줘서 감사하고 전반기동안 선수들 열심히 응원해줘서 고맙다"며 "이번 휴식기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남은 경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K리그 클래식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전남 선수단은 10일부터 15일까지 창원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대, 조선대 꺾고 광주시축구협회장기 우승

광주대 축구부가 11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시 축구협회장기 초·중·고·대학 축구대회에서 조선대를 2대 1로 꺾고 우승했다.

광주대는 이번 우승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지역 대학 대표팀으로 선발, 지난 3월 전국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우승에 이어 오는 10월 18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또다시 우승을 노리게 됐다.

광주대는 이날 경기 초반부터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장악하며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다가 후반 12분 전기성(2년)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후반 41분 조선대 김호규(4년)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연장 승부에 들어가는 듯 했으나, 후반 44분 김영빈(4년)이 천금같은 결승골을 터뜨려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광주대 4년 조용민이, 최우수감독상은 광주대 정평열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광주대는 지난해 호남대를 꺾고 전국체전 광주지역 대학 대표팀으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FC, K리그 챌린지 판도 바꿀까

경찰축구단 1대 0 꺾어
4월 최하위서 4위 진입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9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경찰 축구단을 1-0으로 이기며 시즌 홈 첫승을 거둔 후 서포터즈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의 무르익은 공격력이 K리그 챌린지의 새로운 판도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 FC에게 4월은 잔인했다. K리그 챌린지 '우승후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무기력했던 승부가 계속되면서 최하위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약속도 번번이 지키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패기에 경험이 입혀지면서 광주가 서서히 진면목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1위 독주를 하던 경찰 축구단을 상대로 1-0의 짜릿한 승부를 펼치며 마침내 홈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광주는 전반 25분 터진 김호남의 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정규리그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다. 승점 16(4승4무5패)으로 4위에 재진입한 광주는 3위 부천(승점 20·5승5무3패)과의 격차도 4점으로 줄였다. 1위 경찰(승점 25·5승5무3패)도 불가능한 고지는 아니다.

경험많은 루시오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무패행진의 중심. 울산에서 '천방지축'의 용병으로 통했던 루시오지만 광주 여범규 감독의 '믿음'에 팀을 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용병으로 변신했다.

부지런하게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는 루시오는 공을 뺏고 넘기면서 주어진 역할 이상을 소화해내며 공격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또 지난 시즌 팀의 최다골 주인공인 미드필더 김은선이 중원의 사령관 역할은 물론 영양가 만점의 골도 두 차례 집어넣었다. 이적생 김준엽도 스피드를 앞세워 2골을 기록하고 있고, 박정민·임선영·박현·김수범·안동혁도 골맛을 봤다.

최근 3경기에서는 김호남이 주인공이었다. 지난 11라운드 수원과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 골을 결승골로 장식한 김호남은 12라운드 부천과의 승부에서는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도움을 기록했다. 그리고 안방에서 열린 난적 경찰과의 경기에서 상대 골키퍼 맞고 흘러나온 공을 슈팅으로 연결하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완성했다.

2% 부족했던 김호남의 골 결정력이 라운드가 거듭 되면서 점차 가다듬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 감독이 광주의 새로운 골잡이로 믿음을 주면서 김호남의 잠재력이 실력으로 변화고 있다.

수비의 조직력 강화도 공격수들의 발놀림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수비가 안정되면서 공격수들도 더 과감하게 상대 진영을 파고들고 있다.

고졸 루키인 오도현은 물론 김성진·강민에게도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 등 내부 경쟁을 통한 전력 강화가 광주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다. 정우인의 부상 복귀도 천군만마다. 광주는 9일 경찰과의 경기에 첫 선발로 나선 정우인을 축으로 좌우에 임하람과 유종현을 포진 시키며 스리백을 내세웠다. 그리고 정우인을 중심으로 선제골을 지키면서 한 골 차 승리를 거뒀다. FA컵 포함 광주의 시즌 첫 무실점 승리였다.

매서워진 창과 든든해진 방패, 여름 더위도 내심 반갑다. 치열한 1부리그에서 두 번의 여름을 나 본 만큼 체력관리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광주의 뜨거운 6월이 이어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